

일과 직업의 사회학

직업구조와 사회계층

김현우, PhD¹

¹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April 6, 2022



진행 순서

- ①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② 직업이동
- ③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④ 한국의 직업 계층화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가장 먼저 사회계층과 불평등이라는 사회학 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우연적이고 생래적 불평등이라기보다 **구조적 불평등 (structural inequality)**이다.
- 구조적 불평등은 (1) 지속적이고(persistent), (2) 사회 제도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되며, (3)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된다.
- 먼저 사회학의 고전이론 속에서 계층과 계급 그리고 불평등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보고,
- 다음으로 직업에 따라 사회계층을 분류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철저한 고전적 설명은 Karl Marx에 의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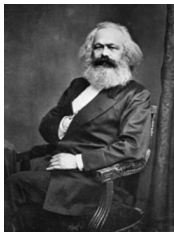
- Karl Marx는 사회계층과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론가로 소개되지만 사실 Marx는 스스로 사회계층과 불평등 모두 본질이 아니라고 보았다.
- Marx는 **생산수단(mode of production)**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 계급(bourgeoisie)**과 **노동자 계급(proletariat)**을 구별한다.
- 빈부격차나 불평등과 같은 현상은 징후(symptom)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 그러므로 맑스주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층(stratification)**과 **계급(class)**은 구별되어야 하며, 계층은 분배의 결과로서 생겨난 문제이지만 계급은 생산과정의 문제로 해석된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철저한 고전적 설명은 Karl Marx에 의해 이루어졌다.

- Karl Marx는 사회계층과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론가로 소개되지만 사실 Marx는 스스로 사회계층과 불평등 모두 본질이 아니라고 보았다.
- Marx는 생산수단(mode of production)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 계급(bourgeoisie)과 노동자 계급(proletariat)을 구별한다.
- 빈부격차나 불평등과 같은 현상은 징후(symptom)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 그러므로 맑스주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층(stratification)과 계급(class)은 구별되어야 하며, 계층은 분배의 결과로서 생겨난 문제이지만 계급은 생산과정의 문제로 해석된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계급은 생산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분배 결과에 주목한다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 Karl Marx에 따르면 노동(labor)과 노동력(labor power)는 구분되어야 한다.
- 노동은 생산활동 그 자체이며 이것을 사고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화폐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상품처럼 판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대가이다.
- 자연상태에서 가치(value)란 오로지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만 생산될 수 있다. 이것을 노동가치설(value theory of labor)이라고 부른다.
-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은 스스로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없고 노동자 계급을 고용하여 화폐임금을 지불한 뒤, 남는 것을 가져야 한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인민은 먼저 역사적으로 **프롤레타리아화(proletarianization)** 되어야 한다. 즉 노동력을 파는 것 이외의 생존수단이 없어야 한다.
- Marx의 잉여가치설(theory of surplus value)에 따르면 자본가가 지불하는 노동력의 가치(=화폐임금)는 노동자가 판매한 노동의 진정한 가치보다 작고 재생산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을 뿐이다. 그 차이만큼 **착취(exploitation)**가 발생한다.
-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공정한 임노동 계약 아래에서도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진) 맑스주의에 따르면 정치·법·교육·예술·학문 따위는 **상부구조(superstructure)**를 구성하며, 이는 경제라는 **토대(base)** 위에 자리잡는다.
- 상부구조는 단지 경제의 이익을 반영할 뿐이므로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곧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전문직 등도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자본가 계급 옆에 선) 착취의 공범이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Max Weber는 계층화를 보다 다원적인 구조로 인식하였다.

- Marx가 오로지 경제, 그 중에서도 생산수단의 소유 문제에 따라서 계급을 나눈 반면, Weber는 계층이 나타나는 원천이 최소한 세 가지 있음을 인식하였다
- 첫번째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부유함(property)**,
- 두번째는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권력(power)**,
- 세번째는 사회적/공동체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신분(status) 혹은 명예

```
(prestige)
```**이다.
- 불평등은 복합적인 차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자원들이 완벽하게 변태가능한 것은 아니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Weber는 계급을 결정짓는 **생활기회(life chance)**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 물론 생산수단의 소유와 자본력도 중요하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위치(market position)**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설령 시장에서의 위치가 동일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진 지식, 능력, 태도 등) **시장에서의 능력(market capacity)**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기회는 달라진다.
- 시장에서 높은 능력을 지니게 된 이들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나름의 성격을 지닌 전문가-기술자 계급을 구성한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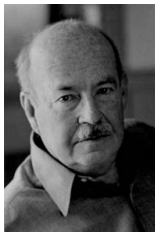
- 계급이 생활기회의 불균등한 분배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지위집단(status group)은 생활양식(life style)의 차이에서 분화된다.
- 돈이나 권력만으로는 세련된 생활양식(life style)을 쉽게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흥부자는 상류층과 어울릴 수 없다.
- 같은 지위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같은 부류로 받아들이지만, 낮은 지위집단으로 여겨지는 이들과는 교제를 꺼린다.
- 마지막으로 (정당이나 이익집단 같은) 정치적 조직은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를 반영한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구조기능주의에서는 계층과 불평등이 나름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된다.

- Talcott Parsons의 제자들인 Kingsley Davis와 Wilbert Moore는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왜 힘들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묻는다.
-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희소성(scarcity)에 따라 직업적 계층화와 불평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 불균등한 보상의 분배(unequal distribution of rewards)는 사회의 기능적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자리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먼저 차지한다고 해석된다.
- 즉 사회적 계층화와 불평등은 사회분업이 발달하면서 필연적인 현상이고 사회 전체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갈등주의는 구조기능주의적 설명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Ralf Dahrendorf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본가 계급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주식시장 발달에 따라 생산수단의 소유 경계가 모호해졌고, 노동자 계급은 직위와 기술 면에서 분화되었으므로 더이상 동질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단일한 원리에 따라 계급 관계가 단순히 나뉠 수 없고 권위 (authority)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Gerhard Lenski는 과연 현재 관찰되는 불평등이 사회의 기능적 필요성을 순수하게 반영한다는 전제부터 비판한다.
- 현실에서는 한 집단이 권력(power)을 강악하면 특권(privilege)을 확보하게 된다. 이제 사회의 법과 규범 체계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고쳐 부와 명예도 독점할 수 있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사회계층과 불평등에 관한 고전이론은 일과 직업의 사회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이론바 계급구조의 실증분석, **중간계급(middle class)**, **전문직(professionals)** 등 일과 직업의 사회학의 여러 주제는 사회계층과 불평등 이론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사회학이론 및 사회계층과 불평등에 관한 교과서를 다시 읽자.
- 먼저 직업분류를 이용한 계층연구에는 다음 세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첫째, 직업분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 있다.

- 이 접근방법에서는 직업분류가 어차피 곧바로 (위계적) 사회계층을 나타내고 본다.
- 영국 인구센서스 및 조사청(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에서 발전하여 1911년 센서스 이래 실제 적용되었다.
- 당시 직업군은 다섯 개로 분류되었는데, 크게 上(전문직), 中(관리 및 기술직), 下로 나뉘었고, 다시 下는 기술 수준에 따라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으로 구분되었다.
- 上은 “상위 정신노동자(전문직, 관리직 등)”, 中은 “하위 정신노동자(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등), 下는 “육체노동자”를 의미한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둘째, 동일한 직업군은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는 접근방법이 있다.

- 이 접근방법은 직업분류 자체를 곧바로 위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 Weber와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에 기반하여 John Goldthorpe는 시장 상황(market situation)과 일 상황(work situation)의 두 요인에 따라 직업군을 계층별로 나누었다.
- 시장 상황은 직업군의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승진 가능성 등 물질적 보상과 생활기회에 주목하는 요인이고,
- 일 상황은 작업장 내에서 권위와 자율성에 주목하는 요인이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골드소프 계급 분류도식(Goldthorpe class scheme)을 이해하기 위해 Giddens (2022: 526-527)와 [유인물1]을 읽어보자.
- 시장위치와 일 상황이 양호할수록 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 일단 직업자료가 주어지면 비교적 간단히 직업군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연구에서의 재현가능성(replicability)을 확보하였다.
-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통계분석 연구들이 이러한 분류도식을 사용하여 주류로 자리잡았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그러나 비판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찰단위(unit of observations)**에 관한 것으로, 개인(individual)인지 가족(family)인지 그도 아니면 가구(household) 중 어느쪽이 적절한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 직업은 개인이 가지므로 개인 단위가 가장 논리적일까? 당신이 설령 직업도 집도 없더라도 당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자산가라면 당신의 계층은 무엇인가?
- 가족 단위로 관찰한다면 누구의 직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흔히 남성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의 직업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된다.
- 가구 단위는 종종 소득을 공유하지 않는 다가족가구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 분류는 엉망이 되고 만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셋째, 직업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착취 관계를 고려하여 계급을 구분하는 접근방법이 있다.

- 맑스주의적 관점에 서있지만 (계급 분류를 위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조사하는 대신 직업 이름을 조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 이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맑스주의 사회학자는 Nicos Poulantzas로, 그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등장한 새로운 **쁘띠 부르주아지(new petty bourgeoisie)**에 최초로 주목하였다.
- 회사원, 기술자, 생산감독자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의 주된 기능은 자본가 계급에 종사하며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이후 Erik Olin Wright는 분석 맑스주의(Analytical Marxism)의 관점에 서서 보다 본격적으로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계급구조를 실증분석하였다.
- 그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에서 모순적 계급 위치(contradictory class location)에 놓인 중간계급은 크게 늘어났다.
- 그러나 이들조차 동일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직 자산(organization assets)과 기술/학력 자산(skill/credential assets)에 따라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유인물2] 참고).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그러나 맑스주의적 관점을 취하지 않는 (특히 근래) 연구자들은 이런 분류체계에서 어떠한 시사점도 찾을 수 없었고, 맑스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계급구성 분석”은 “계급분석”을 대체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 즉, Marx가 말한 계급 개념은 (정태적인) 사회학적 집단이나 직업집단이 아니다. 계급은 오로지 계급투쟁의 효과로서 형성되며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 결국 맑스주의자들조차 계급을 계층 내지 집단과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므로 세번째 접근방법은 사실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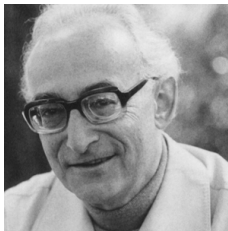


직업이동

직업이동

설령 계층이 존재하더라도 “열린 사회”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며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Martin Seymour Lipset과 Reinhard Bendix의 1958년 연구가 기념비적이다.
- 사회이동은 **수직 이동(vertical mobility)**과 **수평 이동(horizontal mobility)** 및 **세대내 이동(intra-generational mobility)**과 **세대간 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업이동

- 특히 **직업이동(occupational mobility)**은 수직적 사회이동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 그 중 세대간 수직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에 관한 교차표를 살펴볼 수 있다.
- **코호트(cohort)** 별로 **유출이동표(outflow mobility table)**를 그린다면, 교차표의 윗쪽 삼각형은 **하강이동(downward mobility)**을, 아랫쪽 삼각형은 **상승이동(upward mobility)**을 뜻한다.
- 물론 대각선은 직업(군)적 세습을 뜻한다.
- 만약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열린 사회이므로 직업 계층은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직업이동

〈표 1〉 1, 2, 3차 불평등조사의 세대간 직업이동표의 유출률 비교: 1990-2000년

1. 1990년

| | 정신근로자 | 육체근로자 | 농민 | 계 |
|-------|-------|-------|-------|--------|
| 정신근로자 | 66.1% | 30.9% | 3.0% | 100.0% |
| 육체근로자 | 39.2% | 57.3% | 3.5% | 100.0% |
| 농민 | 37.1% | 36.0% | 26.8% | 100.0% |

2. 1995년

| | 정신근로자 | 육체근로자 | 농민 | 계 |
|-------|-------|-------|-------|--------|
| 정신근로자 | 61.5% | 36.0% | 2.5% | 100.0% |
| 육체근로자 | 37.5% | 60.1% | 2.4% | 100.0% |
| 농민 | 36.7% | 43.8% | 20.5% | 100.0% |

3. 2000년

| | 정신근로자 | 육체근로자 | 농민 | 계 |
|-------|-------|-------|-------|--------|
| 정신근로자 | 68.4% | 28.7% | 3.0% | 100.0% |
| 육체근로자 | 43.2% | 52.9% | 3.9% | 100.0% |
| 농민 | 34.3% | 48.3% | 17.5% | 100.0% |

주: 행과 열은 각각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을 가리킴.

차종천. 2002. "최근 한국사회의 사회이동 추세: 1990-2000." 『한국사회학』 36(2): 1-22.



직업이동

- 물론 직업군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당시 구조가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난다.
- 어떤 직업군으로 가장 몰렸는가? 어떤 직업군이 가장 크게 위축되었는가?

| 부의 계급 | 서비스 계급 | 사무직 노동자 | 뿌띠 부르주아 | 농민 | 숙련 육체 노동자 | 비숙련 육체 노동자 | 전체 |
|------------|--------|---------|---------|------|-----------|------------|--------|
| 서비스 계급 | 24.2% | 53.7% | 8.4% | 1.1% | 7.4% | 5.3% | 100.0% |
| 사무직 노동자 | 22.0% | 57.0% | 7.0% | .0% | 2.0% | 12.0% | 100.0% |
| 뿌띠 부르주아 | 15.8% | 55.2% | 15.8% | .0% | 5.4% | 7.7% | 100.0% |
| 농민 | 7.7% | 42.0% | 21.0% | 1.4% | 9.8% | 18.2% | 100.0% |
| 숙련 육체 노동자 | 19.3% | 28.1% | 22.8% | 3.5% | 10.5% | 15.8% | 100.0% |
| 비숙련 육체 노동자 | 13.2% | 44.7% | 14.9% | .9% | 15.8% | 10.5% | 100.0% |

한국교육개발원. 2011.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V): 1976-1986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직업이동

직업이동표는 통계적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단점도 있다.

- 첫째, 아버지와 아들의 비교이고 여성은 전혀 분석되고 있지 않다.
- 둘째, 아버지와 아들의 지위 세습 혹은 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나중에 설명한다).
- 셋째, 아버지의 (정점인지, 주된 직업인지, 아들과 같은 나이인지 등) 어느 시점에서의 직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호하다.
- 넷째, 아들의 직업경력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아직 비교는 이르다.
- 다섯째, 부자 간의 연령 차는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
- 여섯째, 세대가 바뀌는 동안 일부 직업은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고 직업위세 또한 변화한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수평이동도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다.

- 수평이동은 일반적으로 같은 지위의 직업군 안에서 이동을 뜻하지만 근래에는 **지리적 이동(geographical mobility)**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 지리적 이동은 오늘날 어떤 종류의 **양호한 일자리(decent job)**를 따라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 살펴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이민(immigration)**, **이촌향도**, **제조업 공동화(hollowing-out)**, **두뇌유출(brain drain)** 등은 지리적 이동과 직결되는 주제이다.
- 이로 인해 다시 지역간 격차를 낳기 쉬우므로 지리적 이동 문제는 사회계층과 불균등의 새로운 이슈로 검토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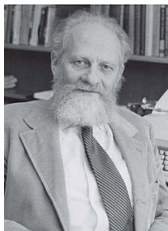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직업이동표는 세대간 수직적 직업이동을 보여주지만 그 매커니즘을 설명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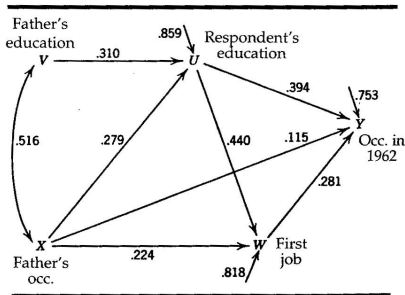
- 수직적 직업이동의 매커니즘에 관한 고전적 설명은 **지위획득모형(status attainment model)**에 의해 이루어졌다.
- 1960년대에 이미 Peter Blau와 Otis Dudley Duncan는 미국 센서스 원자료를 분석하여 이른바 **블라우-덩컨 모형(Blau-Duncan Model)**을 발표하였다.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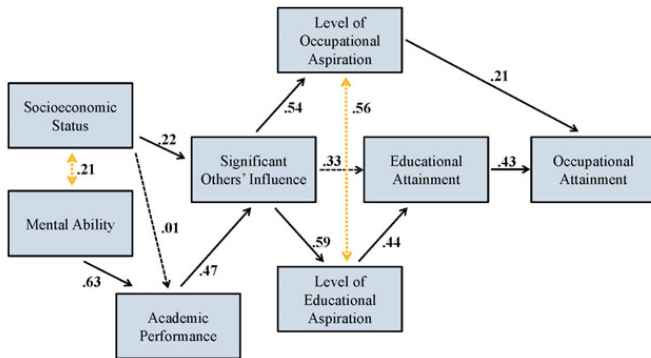
- 본인의 교육수준, 부친의 교육수준, 부친의 직업위세가 청년구직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 그런데 본인의 교육수준은 다시 부친의 교육수준과 직업위세에 크게 좌우된다.
- 지위를 귀속 지위(ascribed status)와 성취 지위(achieved status)로 구분해왔지만, 지위획득모형에 따르면 성취 지위는 귀속 지위에 크게 영향받는다.

FIGURE 1
Path coefficients in basic model of the
process of stratification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이후 블라우-딩컨 모형이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William Sewell을 중심으로 하여 이른바 위스컨신 모형(Wisconsin Model)이 발표된다.
- 두뇌, 자신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열망(aspiration), 파트너(SO)의 영향력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Source: Sewell et al. 1969, p. 85 (simplified depiction)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직업 지위의 획득에 관하여 세련된 대안적 설명들도 살펴보아야 한다.

- 앞서 살펴보면 지위획득모형은 문화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그러나 성별이나 인종 및 민족집단(racial-ethnic group) 등과 같은 귀속 지위의 “다름”이 어떻게 직업적 성취 지위의 “위계”로 이어지는가는 복잡한 사회적 뉘앙스와 미시적 차별(micro-discrimination) 없이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 이를 위해 교육제도와 일상적 문화를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대중교육은 평등과 차별을 함께 낳는다.

- 학교 교육(school education)은 대중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회 제도이다. 이것은 종종 **위대한 균형자(great leveler)**로 칭송되어 왔다(Why?).
- Samuel Bowles와 Herbert Gintis는 교육체계가 단순히 직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 교육과정은 자본주의적 인격을 총체적으로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위계서열. 보상구조편화된 지식과 같은 학교 생활의 구조는 직장 생활의 구조와 맞물린다는 **대응 원리(correspondence principle)**을 제시하였다.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Philip W. Jackson (1968)은 아동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사회적 요소를 **숨겨진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라고 불렀다.
- 하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John Dewey나 Ivan Illich와 같은 사상가들을 통해서도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 학교는 이렇게 가르친다: “Know Your Place.”

Jackson, Philip W. 1968. Life in Classrooms. New York, BY: Holt, Rinehart and Winston.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Paul Willis (1981)는 영국 버밍엄의 한 학교에서 어떻게 노동자 계급의 자녀가 학교 교육을 통해 노동자 계급으로 거듭나는지에 관한 현장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 주제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는 Giddens (2022: 851-863)을 읽어보자.



Jackson, Philip W. 1968. *Life in Classrooms*. New York, BY: Holt, Rinehart and Winston. Willis, Paul. 1981.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획득한 자본이 직업 지위로 이어진다.

- Pierre Bourdieu가 역설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차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체화된다.
- 유흥준 외(2016: 166-169)를 읽어보자.
- Lauren A. Rivera (2015[2020])는 엘리트 로펌, 컨설턴트, 회계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하였다.
- Rivera에 따르면 일단 엘리트 지위에 오른 상류층 백인 남성은 자신과 이어져 있고 (사회자본) 비슷한 세련미를 지닌(문화자본) 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류층 백인 남성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리베라, 로런 A. 2020. 『그들만의 채용 리그: 고소득 엘리트는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지식의날개.



직업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직업 지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 본래 **능력주의** 혹은 **능력정(meritocracy)**이라는 아이디어는 원래 영국 사회학자 Michael D. Young이 1958년에 발표한 소설 The Rise of the Meritocracy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것이 공정함과 정의, 그리고 능력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층화와 불평등은 나의 선택과 무관한 영역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 완벽한 사회이동(perfect social mobility)이 아닌 이상 “열린 사회”라는 관념은 적어도 일정 부분 환상이다.



한국의 직업 계층화

한국의 직업 계층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직업 지위의 계층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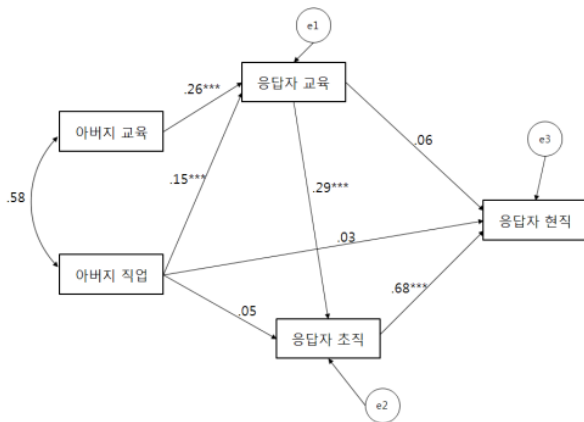
- 지위획득모형은 미국에서 발달하였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 유럽 12개 국가와 한국을 비교한 남기곤(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부친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컸다.
-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교육수준을 경유하는) 직업지위에 대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곤. 2008.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국제비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61-92.



한국의 직업 계층화

- 좀 더 나중에 1976-1986년 코호트를 분석한 한국교육개발원(2011) 연구에서도 유사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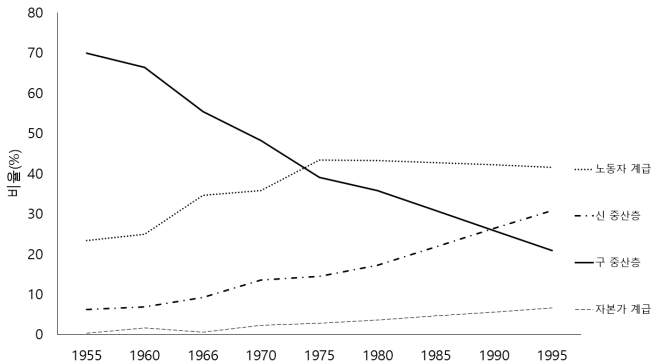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2011.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V): 1976-1986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직업 계층화

한국에서도 한 세대 이전 직업분류에 따른 계층 연구가 수행되었다.

- 김영모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구 중산층”과 “신 중산층”이 있고, 구 중산층은 급속히 감소하였고 신 중산층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직업분류에 더하여 (고용주·자영업자·피고용자로 나눈) **종사상 지위**를 고려하였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는 (인구주택 센서스 자료 대신)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해 계급분류를 시도하였다.
- 계급분류 체계는 홍두승이 1983년에 발표한 7계급 분류(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근로계급, 도시하류계급, 독립자영농, 농촌하류계급)를 따랐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에 이르기까지 제시된 구체적인 설명을 참고하였고, 여기에 다시 종사상 지위까지 고려하여 분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 결론적으로 (화이트칼라를 포함한) 중간계급이 가장 크게 증대하여 한국사회의 계급구조가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하였다고 본다.

홍두승·김병조·조동기.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의 직업 계층화

- 한편, 서관모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1) 자본가 계급과 (2) 노동자 계급을 먼저 나누고, 그 사이에 (3) 신중간 제(諸)계층과 (4) 자영업자층이 있다고 보았다(4 계급론).
- 신중간제계층은 전문직·기술직 종사자 같은 “인텔리 층”과 간호사나 기술공 같은 “임금취득 중간층”의 결합이다.
- 농업부문에서 부농-중농-빈농-농업노동자를 구분한 점과 주변적 무산자 층 구분도 주목할 만 하다.
- 서관모의 결론에 따르면 네 계급/계층 가운데 60년 이래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은 노동자 계급이다.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분류

사실 이 논의의 배경에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대립 구도가 있었다.

- 산업화 덕택에 중간계층이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김영모와 홍두승)과 민주화 세력인 노동계층이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서관모)은 정치적 대립과 잇닿아 있었다.
- 서관모의 연구가 수행된 시점은 80년대와 90년대로 아직 민주화 운동이 치열한 시점이였다. 노동인구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진행되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현실 사회운동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 그러므로 홍두승 외 (1999)를 제외한다면 왜 같은 자료를 사용했는데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 어떤 직업군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가를 두고 정의가 수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종사상 지위보다 정규직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이 문제는 (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수행된) 계급분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의외로) 전세계 곳곳에서 관찰되는 이 문제를 두고 이른바 **불안한 일**(precarious work) 주제가 떠올랐다.
- 최근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보자([유인물3] 참고).
- 그러나 이조차도 만일 한국 사회가 열린 사회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stomping stone)일 뿐이라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한국의 직업 계층화

- 지은정(2007)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디딤돌이라기보다 트랩에 가깝다.

〈표 6〉 근로능력계층의 노동시장이동 Markov 이행확률

| 구 분 | | | 노동시장이동 | | | |
|-----|------|--------------|-------------|---------------|-------------|-------------|
| | | | 4차 | | | |
| | | | 내부 | 외부 | 근로빈곤 | 집단간
차이검정 |
| 3차 | 내부 | 507명(100%) | 525%(266명) | 46.9%(238명) | 0.3%(3명) | .000*** |
| | 외부 | 2,114명(100%) | 7.8%(164명) | 86.0%(1,819명) | 6.2%(131명) | |
| | 근로빈곤 | 252명(100%) | — | 44.4%(112명) | 55.6%(140명) | |
| | 소계 | 2,873명 | | | | |
| 구 분 | | | 노동시장이동 | | | |
| | | | 5차 | | | |
| 4차 | 내부 | 434명(100%) | 66.1%(287명) | 33.2%(144명) | 0.7%(3명) | .000*** |
| | 외부 | 2,190명(100%) | 10.3%(226명) | 75.1%(1,645명) | 14.6%(319명) | |
| | 근로빈곤 | 283명(100%) | 0.7%(2명) | 26.1%(74명) | 73.1%(207명) | |
| | 소계 | 2,907명 | | | | |
| 구 분 | | | 노동시장이동 | | | |
| | | | 6차 | | | |
| 5차 | 내부 | 519명(100%) | 65.3%(339명) | 34.5%(179명) | 0.2%(1명) | .000*** |
| | 외부 | 1,849명(100%) | 9.0%(167명) | 81.9%(1,515명) | 9.0%(167명) | |
| | 근로빈곤 | 541명(100%) | 0.6%(3명) | 32.3%(175명) | 67.1%(363명) | |
| | 소계 | 2,442명 | | | | |

*** $p < .001$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한국의 직업 계층화

최근에는 한층 더 복잡한 이슈가 대두되었다. 이른바 세대 문제이다.

- 즉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사회의 중심을 구성한 이래, 정규직의 안정된 지위와 높은 연공급(seniority wage)을 누리는 동안, 그들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만큼의 직업 지위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제기이다.
- 이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복잡한 사회학적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
- 이철승(2019)은 산업화 세대가 자산과 정치권력,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불균등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불평등 문제가 어느때보다도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문학과지성사.

